

# 군산시, 문화도시 지정 전력

### 문체부 공모사업 준비... 지역 이야기 발굴·문화도시 네트워크 형성 등

군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문화도시 공모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5년간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최대 200억원을(국비50% 지방비50%)지원하여문화도시 조성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을 목표로 현재 지정 심의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맞춰 '군산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 추진업체 선정을 준비하고 있고, 상반기 중 신청을 통해 11월 중 승인을 받으면 1년간의 예비사업을 거쳐 문화도시로 지정받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역 문화 발굴을 비롯해 지역 이야기 발굴사업, 문화도

시 네트워크 형성 등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지역주민화합 및 지역 협력체계와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과, 관광진흥과 등 부서 협력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군산예술촌, 근대역사박물관, 군산문화원, 군산예술의전당 등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문화공간 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산예술콘텐츠타이션과 군산시민문화회관을 하나로 묶어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확대 운영한다면 군산문화예술 사업의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수렴과 협력으로 군산민의 차별화된 비전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도시 추진협의회'를 3월 중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추진

협의회를 통한 지정신청 분야를 확정할 예정이다.

두양수 문화예술과장은 "군산시민의 문화적 역량과 축적된 문화유산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며, "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행정과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문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도시는 2019년 경기도 부천시등 7개 도시가 1차로 지정됐으며, 2020년 제주시, 전북 완주, 전남 순천 등 10개 도시가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군산시는 '군산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입찰공고를 지난 25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10일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과제 제안서를 3월 9일 접수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는 27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의회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 군산형 일자리, 상호연계 강화

### 상생협의회 대표자회의 개최

군산시는 27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의회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5개사 기업대표, 노동계, 실무추진위원회가 참석해 전북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간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논의했다.

대표자회의는 앞으로도 협약이행과제의 구체화, 상생형 지역일자리 공모 대응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는 상호연계성과 협력 강화를 위한 대표자협의체, 행정적 지원을 위한 추진지원단, 실무를 책임질 실무추진위원회, 공동과제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업단이 구성되어 협약이행과제, 상생형 지역일자리 공모 등 긴급하게 돌아가는 현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

응할 수 있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적 실행체계가 마련된 셈이다.

한편,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지난해 상생협약식('19.10.24.) 이후, 참여기업인 명성과 지역부품사와의 상생 MOU 체결('20.1.9.) 및 에디슨모터스를 비롯 5개사 합동기공식 개최('20.1.16.)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대내외에 알린 바 있으며, 전북도와 군산시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중견,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서 그 어떤 지역보다 상생형 일자리 취지에 가장 부합된 모델임을 강조하는 등 중앙부처와 끊임없는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려운 군산 경제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출발점에 함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출발점에 함께, 외출자제 긴급연락처 안내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영란 행정지원과장은 "신천지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이번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면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신천지 전원 조사, 모니터링 돌입

### 자체 조사 결과 신천지 교인 이상증세 없어

익산시가 신천지 익산교회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지속적으로 교인들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확보된 명단과 자체 파악한 명단을 토대로 더욱 정밀한 모니터링에 나선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확보한 신천지 교인 명단을 토대로 보다 강력한 고위험군에

대해 전화 모니터링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직원 43명을 투입해 1대 1 전화상담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눠 1일 2회 실시되고 있으며 다음 달 11일까지 14일 간 진행된다.

앞서 익산시는 자체적으로 지난 24일부터 이를 통한 지역 내 신천지 교인 1,700여명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증상여부와 최근 동선을 파악하고 개인 위생 예방 수칙을 전달했다.

또한 신천지 익산교회 건물을 강제 폐쇄했고 해당 시설과 주변 일대에 방역 작업을 실시했다.

익산 지역에는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선별 진료소와 역학조사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코로나19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익산에서는 발병자가 없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통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 관내 대학 협조 중국인 유학생 관리 보호 총력

군산시가 코로나19 예방과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대학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는 등 중국 유학생 관리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 거주 시설은 대학에서 생활관 및 원룸을 마련해 보호하고 있다. 시에서는 유학생의 생활관을 방역하고 도시락과 유학생 개인 방역물품을 제공한다. 개별 원룸거주자에 대해서는 대학에서는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발열 및 기침 등을 확인하고, 시에서는 개인방역물

품 지원 등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와 대학이 24시간 연락체계를 통해 유학생 건강 상태를 관찰하며, 의료 자문을 지원과 의심 증상자가 있을 경우 환자 이송과 검사의뢰 등을 실시한다.

시에서는 입학하는 중국 유학생의 편의와 대중이용 시설의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입학 유학생에게 공향 픽업 차량도 지원하고 있다.

군산시 중국인 유학생은 3개교에 477명으로 군산대가 372명, 호원대 86명, 군장대 19명이다. 그중 지난 25일 현

재 이미 입국해 14일동안 격리가 해제됐거나 출국하지 않고 국내 머무른 유학생 75명, 휴학 등으로 미입국예정인 163명이다. 또 25일 현재 입국 14일이 지나지 않은 유학생은 38명으로 앞으로 입국예정자는 201명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관내 대학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에 따른 감염병 확산을 최대한 예방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대학가 주변지역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중국유학생에 대한 막연한 경계심을 지역주민과 소통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코로나 19로 아이돌봄 지원 확대 운영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휴원 휴교, 개학 연기로 인한 돌봄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아이 돌봄은 가정 방문 전 자가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위생에 철저히 하여 돌봄 이용 가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에 대해 코로나 19 확진자·접촉자 현황을 계속 파악하는 등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이 돌봄 지원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해당되며, 영아 돌봄과 관련된 종일제와 임시보육 및 등하원을 돕는 시간제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이용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은 정부 지원 시간한도(연 720시간)에서 제외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면 되며, 아이돌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838-6048)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대구·경주·포항행 시외버스 임시중단

익산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지역의 시외버스 운행이 한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계부처, 운수회사의 협의를 거쳐 24일부터 시외버스 대구노선운행을 임시 중단했고 28일부터는 경주, 포항 노선도 전면 운행 중단된다.

시는 대구 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시외버스터미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여 이용객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대중교통 시설 및 차량을 집중 방역 관리 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 코로나19 확산방지 신천지 관계자 전수조사

군산시가 관내 신종 코로나19 관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천지 관계자들의 협조를 받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신천지 군산 교회 소속 2,300여명에 대해 1대1 전화를 걸어 대구나 경북지역에 다녀왔는지 청도장례식장 방문여부, 발열증상이 있는지 여부, 외출자제 긴급연락처 안내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영란 행정지원과장은 "신천지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이번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면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 공무원 복지수당 선 지급

정현을 익산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구내식당을 휴무한 데 이어 시청 공무원의 복지수당도 선 지급하기로 했다.

정시장의 특별 지시로 긴급히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분 6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8일 3월분 1억 5천만원을 선 지급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